

수출 1조 돌파…“전남, 국가 김 산업 중심지로”

■ 전남연구원, JNI 인포그래픽 분석

국내 생산량 77.5% 집중…가공·수출 구조 주도 164개국 공급망…국립김산업진흥원 설립 필요

국내 수산물 수출 1위를 차지하는 김 산업은 수출 1조원 시대를 열며 국가 핵심 산업으로 부상한 가운데, 생산과 수출의 중심지인 전남에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남연구원은 27일 ‘ JNI 인포그래픽 – 전남 김 세계에 자리매김’을 통해 국내 김 산업의 생산·수출 구조를 분석하고, 전남의 산업적 위상과 함께 ‘국립김 산업진흥원’ 전남 설립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분석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김 생산량은 약 55만t으로, 이 가운데 전남이

약 43만t을 생산해 전체의 77.5%를 차지했다. 김 양식이 1600년대 전남 광양 태인도에서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도 전남이 생산 기반과 양식 기술을 주도하며 산업 중심지 역할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상징성과 실질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 평가된다.

김은 이제 단순한 수산물을 넘어 대표적인 수출 헤자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2024년 김 수출액은 9억9700만달러로, 참치캔(5억8900만달러)을 크게 웃돌았

었다. 특히 2015년 이후 김 수출은 연평균 13.1%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다.

이 같은 성장세는 2025년에도 이어져,

11월 기준 김 누적 수출액은 10억4000만 달러를 넘어섰다. 수출 대상국은 164개

국에 달하며, 국가별로는 미국이 2억

3000만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본(2억

2000만달러), 중국(1억달러)이 뒤를 이

었다.

김 산업의 확장은 전남 지역경제에도

직접적인 파급 효과를 내고 있다. 2024년

부산 1.8만t(3.2%)

부산 1.8만t(3.2%)</p